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중간 지대와 같은 시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사'는 히브리 단어 '쇠페트'를 번역한 단어인데 '재판하다'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지만 한글 성경이 중국어를 거쳐 번역될 때 사용하던 '사사'라는 중국어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라는 의미는 '재판관' 혹은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였지만 전쟁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지도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사사의 직업과 신분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스렸으며 제사장처럼 세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인데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것입니다.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여 여호와의 진노와 재앙 앞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즉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와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의 대적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죄악의 패턴은 사사기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대로 행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면 금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 받은 성도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평안함에 젖어 곧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평안하고 우리의 소유가 풍족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게 되기 쉬워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 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경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완전히 우상만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많이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회막과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명목상으로나마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역시 사사로 불렸던 엘리 제사장(삼상 4:18)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이 우상만 섬겼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을 따랐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도 따라 섬겼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만일 어떤 성도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에 가서 불공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런 예는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요'라고 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풍수나 관상, 사주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재미로 한다'라고 변명하실 것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똑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웃니엘로부터 시작하여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사들의 직업과 신분, 그들이 자라온 배경 등은 제각각 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 시대의 사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며 살고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멸망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처음 태어난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진리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즉 상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편협하고 강압적인 신앙이라고 거부하고 평가 절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변하여도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

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사 시대와 같은 어지러운 시대임을 기억하시고 깨어 있어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